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이현미¹, 하정희^{2*}

¹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²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The Moderating Effect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cultural Attitude

Hyun-Mi Lee¹, Jung-Hee Ha^{2*}

¹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Hanyang Cyber University,

²Department of Adolescent Counseling,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의 조절 효과를 발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258명을 그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완벽주의의 하위변인과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 간에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완벽주의 하위변인들 각각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황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의 관계는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아울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 개방과 수용 간의 관계 또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서 유의하게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가는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완벽주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 간 관계에 대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접할 때,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을 높이는 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m and multicultural attitude upon a premise that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m :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re related to multicultural attitude and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cultural attitude. The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multicultural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258 office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from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ed. First,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m was partially associated with sub-factors of multicultural attitude. In particular two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m :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yielded effect on multicultural attitude, controlling the effects of other subscales. Seco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self oriented perfectionism' and sub-factor of the multicultural attitude : 'recognizing difference'.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b-factors of the multicultural attitude : 'recognizing difference', 'openness and acceptance'. This present findings not only extend understandings about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cultural attitude by examining self-concept :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but also provide that it isn't helpful that further support and rationale for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s intervention for targets to focus in counseling process for those who suffer from perfectionism.

Keywords : multicultural attitude, perfectionism,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multicultural attitude, recognizing difference, openness and acceptance.

본 논문은 이현미(2013)의 석사학위논문들 일부 수정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Ha(Hanyang Cyber University)

Tel: +82-2-2290-0341 email: hajung366@hanmail.net

Received July 14, 2015

Revised (1st August 12, 2015, 2nd August 21,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국가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이다." 이는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조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의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실상은 그리 밝지 않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나 다문화 자녀들의 차별과 사회현상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2],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다문화인의 사회 부적응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이 사회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3].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전망과 필요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4,5]. 그러나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관주도의 다문화 관련 제도의 제정과 정책의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의 변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문화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개개인의 저변에서부터(bottom up)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함은 물론 기본적인 신념, 정서 및 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5].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개인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연구들 가운데 다문화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 태도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이 다른 문화에 대해 형성한 신념과 정서, 행동 경향성인데, 이는 환경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6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Munro[50]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태도를 지식, 관심, 행동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다문화태도를 지식, 정서, 행동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지식(know) 영역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인지적 생각, 신념, 지각된 사실을 포함하였고, 정서(care) 영역에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통해 다문화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포함하였으며, 행동(act) 영역에는 다문화에 대한 행동 의도가 포함되었다[3]. 이를 통해 다문화인에 대한 태도를 교육에 의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

적 관심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3]. 즉 개인이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개방적이며 공감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도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 요인을 포함한 다문화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7].

그렇다면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적응적인 다문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타인 간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편견을 갖지 않은 채 개방적이고, 낮은 공간에서도 적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타인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하며 자기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태도에 적응적, 부적응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에 관심을 두고, 이들 가운데 하나로서 완벽주의의 성격을 상정하였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8],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며[9], 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또한 자신을 크게 비난하고,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0,11].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데, 만약 그들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 대한 실망 및 비난을 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12]. 완벽주의의 이러한 특성들을 보았을 때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다문화태도를 가지고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은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불어 현대사회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며, 단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추구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완벽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13,14 재인용].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완벽은 더 이상 어느 특정한 극소수 사람만의 성향이 아니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15]. 또한 과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단일차원의 역기능적인 성격특성으

로 여겼으나, 현재는 적응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성격특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가운데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사회의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다문화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ewitt와 Flett[16]는 행동양상의 대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완벽주의를 세 가지 차원,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완벽의 추구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동기설정 또한 완벽을 추구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고 어려운 기준을 목표로 하여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타인의 행동에 대해 완벽함을 추구한다. 완벽주의의 마지막 하위차원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지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성격특성이다[17,18 재인용].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가운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측면 또한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적절하며 타인의 요구에 대응함에 있어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19], 우울, 불안과도 부적 상관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20]. 또한 자원동원성[21], 긍정적인 정서[22], 확신성 및 성실성[23], 강한 내적인 동기[24]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25].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긍정적 내적 동기와 건설적인 노력 등의 적응적인 잠재력과 관련되며[26,27], 융통성 있는 대인관계와도 관련 되는 특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 비난 등 대인관계에서 좌절을 겪기 쉬운데, 이는 부부문제, 가족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27,28 재인용]. 이렇듯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

과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난 및 적개심을 표하여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근거로 미루어 볼 때,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측면과 관련성이 있는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세 차원 가운데 개인내적,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심리 부적응과 가장 깊이 관련되는 병리적인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29]. 이 완벽주의 특성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을 스스로가 달성할 수 없다고 여김으로서 이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우울, 불안, 분노, 성격장애, 실패감, 무망감과 같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11,21,30,31,29,33 재인용], 행복감도 덜 느끼게 된다[34]. 이들은 완벽함의 기준이 타인으로 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은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낌으로서 타인이나 사회에 분노나 적개심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 내적, 외적 차원에서 모두 부적응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또한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과 다문화태도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할 때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이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변인을 함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완벽주의 성격은 완벽주의를 지속하는데서 오는 이점이나 보상을 포기하기 어려워 쉽게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라 할 수 있다[35,36,37,14 재인용]. 이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와 다문화 태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심리적 기제의 하나로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상정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이 지적으로 얼마나 유능한가 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타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지에 개의치 않고서, 스

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충분히 수용함을 의미하는데[39], 이는 완벽주의와 관련성이 크다[40].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판단적이며 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결과적으로 자기개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의심이 크고 비난적인 사고를 하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된다. 특히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을 과도하게 요구한다[41,16].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의논하거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것이다[18]. 타인지향 완벽주의 또한 남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비난함으로써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역시 비판적이며 염세주의 신념이 강하고 효능감이 낮다[42].

이렇듯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 채로 더 나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거나 혹은 결함이라 여겨지는 부분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노력한다[33]. 이들이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패턴과 자기패배적인 전략들에 기인하며, 이것들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완벽주의 성향은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 낮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예측해준다고 할 수 있다[43]. 그러므로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의미 있고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자기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 개인의 가치감을 위협받지 않게 되어[44] 부정적인 사건을 직면하더라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45], 자신의 상황을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면한 현실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더 적응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추후 풀어야 과제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이해 및 통찰이 가능해질 것이다[58]. 또한 자신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짐으로서 자신과 다른 타

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게 된다[46,38 재인용]. 따라서 한 개인이 비록 높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취할 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및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간의 관계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는 2곳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00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260부 중 성실하지 않은 응답자 2명의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총 25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 MPS)

Hewitt과 Flett[15]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에서 한기연[47], 홍혜영[48]등이 번안하고 김연수[49]가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45개 문항이며 하위 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평정되며 각 영역에서 점수의 합이 클수록 각 영역의 완벽주의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Hewitt과 Flett[15]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8, .86,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8, .72, .72이었다.

2.2.2 무조건적 자기수용(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Chamberlain과 Haaga[50]가 개발한 것으로 김사라형선이 변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서은경[51]의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관이 역상관관이 나타나거나 문항-총점 간 상관관이 .2이하로 떨어지는 문항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공통분이 .30이하로 낮은 문항들이 8문항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거한 후에 나머지 12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사라형선[44]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었으며 서은경[51]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였다.

2.2.3 다문화태도

다문화태도는 Munroe[53]에 의해 개발된 MASQURE(The Multicultural Scale Questionnaire)을 강혜정[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타당화한 다문화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개 문항으로 차이인식, 개방과 수용, 실천의지의 3가지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차이 인식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인지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개방 및 수용은 언어나 문화, 종교 등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려는 정의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실천의지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몸소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행동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전체 점수의 합이 클수록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차이인식의 합이 클수록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방과 수용의 합

이 클수록 문화, 언어 종교적 다양성 등에 대해 더욱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천의지가 클수록 차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참여하여 실천하려는 의지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79, .77, .78이었고[3],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92, .86, .93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258명의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체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으며, 완벽주의(자기지향 완벽주의/타인지향 완벽주의/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차이인식/개방과수용/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54]. 한편, 센터링(centering) 과정은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하며[55]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속 변인 독립변인의 총점을 z 점수로 변환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를 하위변인 별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주효과(자기지향 완벽주의/타인지향 완벽주의/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를 통제 한 후에도 종속변인(차이인식/개방과수용/실천의지)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자기지향 완벽주의/타인지향 완벽주의/사회부과 완벽주의×무조건적 자기수용)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때 이를 상호작용 효과로 여긴다.

3. 연구 결과

3.1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초통계치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 다문화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 개방수용,

실천의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n=258$)

Variables	1	2	3	4	5	6	7	8
perfectio -nism	1. -							
	2. .41**	-						
	3. .46**	.42**	-					
uncondi -tional self -acceptance	4. -.13*	-.33**	-.43**	-				
	5. .24**	-.08	.01	.33**	-			
multi -cultural attitude	6. .20**	-.06	.00	.20**	.80**	-		
	7. .17**	-.11	-.02	.32**	.84**	.47**	-	
	8. .20**	.03	.00	.31**	.83**	.44**	.64**	-
M	4.74	3.94	4.02	4.24	4.14	4.45	3.99	3.92
D	.73	.51	.49	.63	.80	.96	1.00	.99

* $p < .05$, ** $p < .01$

Note. n =sample size.

1. self-oriented perfectionism, 2. other-oriented perfectionism,
3.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4.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5. multicultural attitude, 6. recognizing difference,
7. openness and acceptance, 8. commitment

3.2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관계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검증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계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완벽주의의 하위 변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각각 1단계에 투입하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변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변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각각 2단계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인으로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 개방과수용, 실천의지를 각각 투입하였다. 따라서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2, 표3, 표4, 그림1, 그림2, 그림3에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2를 살펴보면,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에 대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224, p<.001$; $\beta=.222, p<.001$).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 정도가 클수록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이인식을 덜 함으로서 다문화 태도가 더욱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차이인식에 대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beta=-.146, p<.05$),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차이인식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적 자기수용 점수의 +SD, Mean, -SD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하위요인인 차이인식과의 관계를 보는 회귀선을 구하여 차이인식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그림1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경우($b=0.089, t(248)=1.12, n.s.$)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하위요인인 차이인식 간에 정적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중간인 경우($b=0.24, t(248)=3.93, p<.01$), 그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은 경우($b=0.38, t(248)=4.47, p<.01$) 모두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차이인식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중간이거나 혹은 낮을 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대해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다 잘 인식함으로써 다문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3을 살펴보면,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차이인식에 대해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251,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65, p<.01$). 이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차이인식을 더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차이인식 간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를 앞서 살펴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회귀선을 구하여 차이인식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그림2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경우($b=0.68, t(246)=0.75, n.s.$)와 중간 수준인 경우($b=0.096, t(246)=1.42, n.s.$)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다문화에 대한 차이인식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은 경우($b=0.26, t(246)=3.07, p<.01$)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차이인식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클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낮을 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차이인식을 보다 더 함으로서 다문화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4를 살펴보면,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인 개방과 수용에 대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158, p<.05; \beta=.383,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68, p<.01$).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성향이 클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클수록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 정도가 더 커짐을 의미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 정도가 유의하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를 앞서 살펴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회귀선을 구하여 차이인식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그림3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경우($b=-0.024, t(246)=-0.27, ns$)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개방과 수용과 간에 부적관계가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중간인 경우($b=0.15, t(246)=2.25, p<.05$)와 낮은 경우($b=0.31, t(246)=3.86, p<.01$)에 모두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개방과 수용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클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수준에서 다문화에 대해 더욱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effect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on recognizing differ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1step(β)	2step(β)
recognizing difference	self-oriented perfectionism(A)	.224***	.235***
	unconditional self-acceptance(B)	.222***	.244***
	A X B		-.146*
	ΔR^2		.021
	R^2	.081	.102
	F	12.127***	10.454***

*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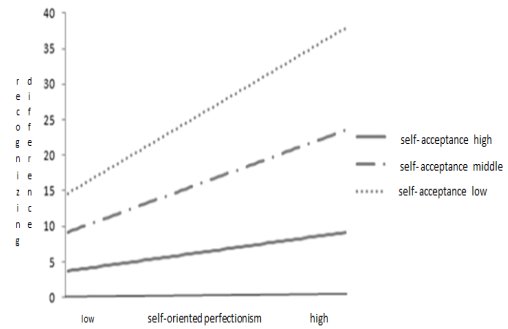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recognizin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recognizing differ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1step(β)	2step(β)
recognizing differenc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A)	.109	.096
	unconditional self-acceptance(B)	.251***	.223**
	A X B		-.165**
	ΔR^2		.029
	R^2	.045	.074
	F	6.861**	7.624***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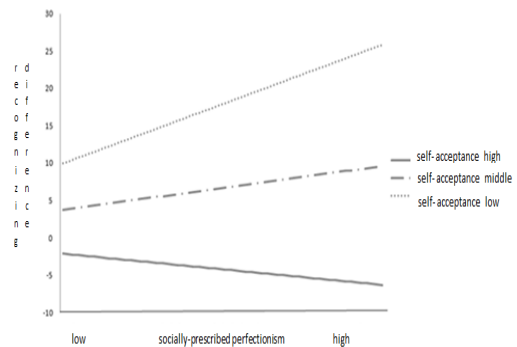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cognizin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effect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openness and accepta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1step(β)	2step(β)
openness and acceptanc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A)	.158*	.145*
	unconditional self-acceptance(B)	.383***	.355***
	A X B		-.168**
	ΔR^2		.031
	R^2	.117	.148
	F	17.438***	15.39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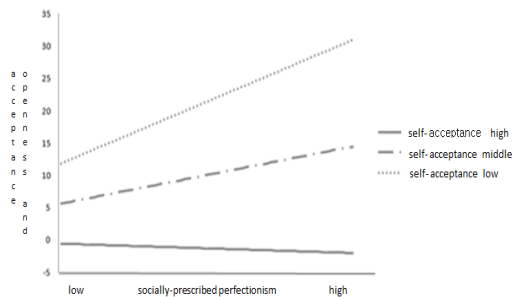


Fig. 3.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openness and accept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주된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가 다문화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의 하위변인으로 표현되는 차이인식, 개방과 수용 그리고 실천의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완벽주의가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 전체와 개방과 수용에 유의한 부정 상관을 나타내

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다문화태도에,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다문화태도와 관련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성향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적, 적응적인 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며[27],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더 커진다[18]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하정희[18]의 연구를 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향상이라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이는 긍정적 성취욕구(positive striving need)라는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우울과 부정적 정서가 아닌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었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잠재력, 가령 건설적인 노력이나 강한 동기부여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26][21].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측면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문화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들에게 여러 차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다문화인에 대해 관심을 쏟고 이들을 수용하고자 노력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 하위변인인 차이인식, 개방과 수용, 실천의지와 관계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문화태도에 대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중간인 경우와 낮은 경우에만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의 하위요인인 차이인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다문화태도의 하위요인인 차이인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중간인 경우와 낮은 경우에만 다문화태도의 하위요인인 개방과 수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

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에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더욱 더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다문화인과의 관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만약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나 무능감과 같은 단점까지도 스스로가 수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이 다문화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본 연구의 맥락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까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어 지각된 자기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수 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인 자아의 측면만을 과장되게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Sherry 등[56]은 부적응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자신의 불확실한 자아감을 안정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33 재인용].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하기 보다는 자기수용을 보다 덜 할 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며 그들에게 더욱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해할 때,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이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많이 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 부정적인 감정 또한 무조건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으로부터 부과된 기준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느끼고 통

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실패감을 자주 경험하며[57,18 재인용],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16]. 이렇듯 타인들의 기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현실의 자기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제 자기와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갖기 쉽다. 이 때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분노,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덜 거부적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회부와 완벽주의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단점까지 온전히 수용하는 자기수용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제로만 사용된다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적응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현장에의 적용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다문화태도에 대한 연구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개인의 삶,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성취 욕구를 가지고 적극성을 발휘하여 적응적이며 기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22],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완벽주의 그 자체가 다문화태도와 전적으로 부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완벽주의의 여러 차원 가운데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다문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및 상담에 있어서, 타인에게 완벽성을 추구한다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과도하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성을 추구하는 성격의 적응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완벽주의 특성은 다문화태도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완벽주의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신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높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함께 고려할 때 다문화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대인 관계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이 완벽의 초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문화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만이 아닌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다문화태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까지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것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어져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지각된 자신의 수용이나,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는 자기수용이라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자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자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과 나와 다른 다문화인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의미는 한 개인이 성격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함께 고려할 때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33].

본 연구의 결과를 다문화 교육과 상담 현장에 적용해 볼 때, 무조건적 자기수용 그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단순히 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향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부적응적 성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접할 때, 교육자나 상담자가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자기수용을 향상시키려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다문화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간에 관련성은 크지만, 진정한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나친 완벽주의 성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2곳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변인들의 측정에서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일반인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추후 다양한 연령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r=.20\sim.40$)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완벽주의가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통계적 유의성만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성이 과대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해석과 결과 적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두 번째 제한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변인으로서 완벽주의를 상정하여 다문화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문화태도에 영향 미치는 성격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완벽주의 외에 다문화 태도 및 편견과 관련하여 보다 영향력이 클만한 성격변인을 탐색하고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 방식에 의해 얻어졌으므로 설문 응답자들이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태도에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완벽주의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실제와는 다르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 행동평가를 하는 등 질적 방법을 병행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Even though we are different, together]"Korea is multicultural society ... is not a single-race nation." Dong-A ilbo. 2010.10.16.
- [2] M. J. Kim., Y. S. Kim., & G. S. Han, "Policy agenda about experience of culture conflict and communication

- enhancemen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6.
- [3] H. J. Kang,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Master's Thesis. 2012.
- [4] I. C. Choi, "The challenge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3-10. 2008.
- [5] K. R. No. "The develop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s and race attitud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age".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09.
- [6] S. M.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elf-Esteem, and multicultur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12.
- [7] M. 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10.
- [8] Hamachek, D. E.,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y*, 15, 27-33. 1978.
- [9] Blatt, S. J., & Zuroff, D. C., When and how perfectionism impedes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23-428.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66.2.423>
- [10] Burns, D. D.,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1, 34-52. 1980.
- [11] Pacht, A. R.,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39.4.386>
- [12] S. D. Nam. "The prediction model of mid-life women's family stress and mental health".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09.
- [13] S. H. Cho, J. S. Lee,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roles of need for approval, self-reinforcement, success-fail experienc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9, 35-38. 2011.
- [14] J. Y.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3.
- [15] J. H. Ha,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4), 1069-1088. 2011.
- [16] Hewitt, P. L., & Flett, G. L.,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456-470. 1991a.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0.3.456>
- [17] Hewitt, P. L., Flett, G. L., Turnbull-Donovan, W., & Mikail, S. 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3, 464-468. 1991.
DOI: <http://dx.doi.org/10.1037/1040-3590.3.3.464>
- [18] J. H. Ha,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rejudice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image management". *Journal of Cyber Education*, 7(1), 1-17. 2013.
- [19] S. H. An, "Relationship of perfectionist tendencies, inferiority complex".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0.
- [20] O. Y. Choi.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tic Tendency and Self-esteem to Depress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998.
- [21]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1991.
- [22]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W., Mattia, J. I., & Neubauer, A. L.,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1993.
DOI: [http://dx.doi.org/10.1016/0191-8869\(93\)90181-2](http://dx.doi.org/10.1016/0191-8869(93)90181-2)
- [23] Hill, R. W., McIntire, K., & Bacharach, V. R., Perfectionism and the big five facto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 257-270. 1997.
- [24] Mills, J. S., & Blankstein, K. R., Perfectionism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1191-1204.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00\)00003-9](http://dx.doi.org/10.1016/S0191-8869(00)00003-9)
- [25] S. Y. Kim.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 Focused on the APS-R (the 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5.
- [26]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 S.,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1991.
DOI: [http://dx.doi.org/10.1016/0191-8869\(91\)90132-U](http://dx.doi.org/10.1016/0191-8869(91)90132-U)
- [27] S. N. Kim. "A Study on the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Propensity of Childr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5.
- [28] Brown, S. R., *Perfectionistic thinking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University of Georgia. 1993.
- [29] Y. H. Kim, & S. G. Seo, "A Review of Perfectionism: Assessment and Trea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3) 581-613. 2008
- [30] Hewitt, P. L., & Flett, G. L.,.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1991b.
DOI: <http://dx.doi.org/10.1037/0021-843X.100.1.98>
- [31] Hewitt, P. L., Flett, G. L., Turnbull-Donovan, W., & Mikail, S. 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3, 464-468. 1991.
DOI: <http://dx.doi.org/10.1037/1040-3590.3.3.464>
- [32]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 & Pilkonis, P. A., Role of perfectionism and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response to brief treatment for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629-633.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71.3.629>
- [33] J. H. Ha.,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Korea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2), 221-239. 2010.
- [34] J. H. Ha., & Y. J. Jang.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m to Subjective Well-Be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Giving among College Students: Received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3(2), 427-449. 2011.
- [35] Blatt, S. J.,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1995.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0.12.1003>
- [36] Flett, G. L., & Hewitt, P. L.,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DOI: <http://dx.doi.org/10.1037/10458-001>
- [37]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130-145. 2001.
- [38] J. Y.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3.
- [39] Ellis, A., *Better, Deeper, and more enduring brief therapy: the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pproach*. New York: Brunner/ Mazel, Inc. 1996.
- [40] Flett, G. L., Blesser, A., Davis, R. A., & Heitt, P. L.,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Cognitive-Behavior Therapy*, 21, 11-138. 2003.
DOI: <http://dx.doi.org/10.1023/A:1025051431957>
- [41] M. I. Jeon, & H. K. Lee. "The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67-83. 2011.
- [42] Kanfer, F., & Hagerman,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Rehm (Eds.),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Pres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pp. 143-179).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 [43]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4), 665-676. 2006.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5.08.008>
- [44] S. R. H. S. Kim, "Moderating Effect of a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fectionism and the Child's Emo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05.
- [45]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response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Therapy*, 19, 177-189. 2001b.
DOI: <http://dx.doi.org/10.1023/A:1011141500670>
- [46] Dryden, W., & Neenan, M., *The rational emotive behavioral approach to therapeutic change*. London: Sage. 2004.
- [47] K. Y. Ha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 Relations of Concept, Measurement and Maladaptation". Korea

-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1993.
- [48]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5.
- [49] Y. S. Kim.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on Immediate Depressive Reaction and Enduring Depressive Reaction after Experiencing Achievement-Related Stres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98.
- [50]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63-176. 2001a.
DOI: <http://dx.doi.org/10.1023/A:1011189416600>
- [51] E. K. Seo, "Relation of Supervisee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to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Mediation effects of shame, self-acceptance, and cognitive coping" I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10.
- [52] K. S Kim,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Hannarae. 2007.
- [53] Munroe, A., & Pearson. C.,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2006.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05285542>
- [54] S. H. Ho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ory and application". Yonsei University(Nonpublishing). 2007.
- [55] K. P. Park. "Variat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eoul : Hakjisa. 2003.
- [56]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y, D. L., & Hall, P. A.,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477-490. 2007.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6.07.026>
- [57] S. E. Yu, & J. H. Kyun,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Stress, and Coping Style on Depression in the Middle-aged Woma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67-84. 1997.
- [58] M. H. Byun, "Influence of Zen-Dance Meditation Program on Adolescent Anxiety, Impulsivity, and Self-Acceptance".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4.

이 현 미(Hyun-Mi Lee)

[정회원]



- 2013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심리상담 전공(석사)

<관심분야>

기업 상담, 개인의 적응, 동기 활성화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적응, 소수자특성